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음 4월 18일) 제 15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

국악의 메카에서 신나게 놀다 가세요!

농악·관악·현악
무용·판소리 등 경연
올해도 익명 국악인이
1억6100만원 기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열린다. 지난해 6월 1일 전주 경기전에서 열린 국악 명인·명창 등용문인 제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한 정수인씨가 심청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

심사위원 확보가 가능해서, 올해 대회는 한층 더 질 높은 경연대회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진 대회 위상에 맞게 경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경연대회 예선시간을 늘려(판소리 명창 부문 예선시간 30분 → 40분 연장) 참가자들의 역량향상을 도모했다. 또, 모든 종목의 경연을 열린 공간으로 이끌어 내고, 경연과 공연을 연계 배치함으로써 경연의 공연화와 축제화를 꾀했다.

특히 기획공연과 경연을 한옥마을에 집중함으로써 접근성과 공간의 밀집도를 높여 시민과 관광객이 경연과 공연을 축제처럼 즐길 수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대사습놀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체부 공모사업인 '대표적 공연예술재 관광지원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경연뿐만 아니라 경연과 어울리는 다양한 기획공연이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 경연대회와 더불어 총 37개팀 253명의 출연진들이 '어린이명창전', '어린이국악극', '대사습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총 42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대사습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 행사는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풍남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전주를 대표하는 국악인과 젊은 국악그룹이 펼치는 '창작국악열전' 축하공연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대회 기간 기획초청공연으로는 '창

작국악열전'이 펼쳐지고 국악계 최고 명인, 명창 그리고 역대 대사습장원자의 화려한 명품무대인 '장원, 그 찬란한 역사!', '밤샘콘서트', 한국형 파크 콘서트 '국악의 수도 전주! 대동놀이'가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을 펼쳐낸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통해 전주가 왜 국악의 수도인지, 왜 대한민국 문화수도인지에 대한 답이 명명백백해 질 것이다"라며 "이번 대회를 국악인 등용문에 걸맞은 내실 있는 경연과 더불어 국악인, 시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대축제로 착실히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목하 고민중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첫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당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당초 청와대는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전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반발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한 기조였다.

與 "당연하다" 분위기 잡아 내달 7일 각의서 가능성 제기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의 침해로 인한 소지가 분명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국회 운영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난해 거부권 행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권력지형상 법안 폐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된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불참해 재의결 자체를 무산시켰지만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2석에 불과하다. 결국 표대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에서 30명 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재의결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자칫 레임덕(권력누수)을 스스로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협치(協治)라는 기조가 무색하게 20

대 국회와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기류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거부권과 관련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물론 청와대가 딱 잘라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분위기에선 '검토 중'으로 바뀐 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이 이송된 직후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한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석준 국무부 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돼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해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역할 분담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재의결로 좌절된다 해도 박 대통령이 잃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박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동정심이 일어 오히려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넘어왔으니 6월7일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시간이 남아 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민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내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인 다음달 7일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성주 기자

▶ 매일 INDEX

3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4면 한옥마을 식품위생 위반업소 5곳 적발

5면 전주시 주정차 카메라 구입 특혜 시비

14면 지질학자의 해설있는 마이산 탐방

정읍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우리농산물

단풍미인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단풍미인쇼핑몰 이용시 기본혜택

1. 정읍시청 택배비 100% 지원,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택배 이용 무료배송
2.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3. 매주 화요일 딱 하루! 다양한 농축산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5월: 꿀, 녹차,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귀리

6월: 단풍미인 씨없는수박, 블랙베리, 여주

8월: 태양초고추, 사과, 쌀쌀

9월: 단풍미인 토마토, 고구마

10월: 동글마, 꽃감

11월: (이미지 없음)

고객만족전화 080-535-4345(무료) / 063-532-4345

네이버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 해 보세요